

五方 체계로 본 五獸의 형성 과정

박성우* · 문치웅**

〈目 次〉

1. 머리말
2. 전래 문헌에 보이는 五獸의 형태
3. 문헌에 근거한 五獸의 형성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출토 자료 殷商 갑골문에 근거하면, 지리적 형태를 동, 서, 남, 북 네 방위와 네 방위의 중심 공간을 중앙으로 삼아 東, 西, 南, 北, 中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 다섯 방위가 기초 되어 각 방위의 책임자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보일 뿐만 아니라, 다섯 방위를 향한 풍년 기원 또는 중앙이 주체 되어 사방을 향한 점술 의식 행위가 서술되었다.¹⁾ 이는 영토적 공간을 五方이라는 틀에 규격화하고, 당시 목축업과 농경사회라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욱이 이 五方에 대한 개념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점차 근본과 대상이 다른 계통과 복잡하게 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나 만상을 다섯 형태로 범주화하려는 흥미로운 인식 또한 발생하게 된

* 제1저자: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홍익재단 역사문화연구소 참여연구원

** 공동저자: 홍익재단 역사문화연구소장

1) 甲骨文集(이하 『습』으로 약칭) 36975에서 다섯 방위를 향해 한 해 수확을 점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습』 14295와 『습』 30391에서 중심 공간에서 사방을 향한 풍년 祭祀, 각 다섯 방위를 주관하는 신하를 지칭하는 듯한 帝五臣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郭沫若, 『甲骨文集』, 1983.

다. 이와 같은 형태는 전국시대 이후의 전래문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管子』, 『呂氏春秋』, 『淮南子』, 『禮記』, 『獨斷』, 『孔子家語』 등의 고대 문헌 자료를 제시해 볼 수 있다. 이들 문헌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管子·四時』: “동방을 木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봄이며, 그 기운은 바람이라고 한다. 바람은 木과 骨을 낳고, 그 덕은 기쁨으로 가득 차 만물을 시기에 맞게 나오게 한다. ……남방을 日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여름이며, 그 기운은 양이라고 한다. 양은 (五行의) 火와 氣를 낳는다. 그 덕은 은택을 베풀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중앙을 土라고 하는데, 토의 덕은 사시를 돕고, 바람과 비로 사시의 運行을 도우며, 토기를 조절하여 힘을 이롭게 한다. 토는 피부와 살을 낳는다. 그 덕은 화평하고 고르며, 中正하고 사사로움이 없어 참으로 사시를 돕는다. ……서방을 辰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가을이며, 그 기운은 陰이라고 한다. 음은 (五行의) 金과 생물의 껍질(甲)을 낳는다. 그 덕은 근심하고 슬퍼함, 고요하고 바름, 장엄하고 화순함, 거처함에 감히 방탕하지 않음이다. ……북방을 月이라고 하고, 그 계절은 겨울이며, 그 기운은 추위라고 한다. 추위는 (五行의) 水와 생물의 血을 낳는다. 그 덕은 순박하고 청초함, 온량한 위세, 자세하고 세밀함이다(東方曰星, 其時曰春, 其氣曰風, 風生木與骨, 其德喜羸, 而發出節時, ……南方曰日, 其時曰夏, 其氣曰陽, 陽生火與氣, 其德施舍修樂 ……中央曰土, 土德實輔四時, 出入以風雨, 節土益力, 土生皮膚, 其德和平用均, 中正無私, 實輔四時, ……西方曰辰, 其時曰秋, 其氣曰陰, 陰生金與甲, 其德憂哀, 靜正, 嚴順, 居不敢淫佚 ……北方曰月, 其時曰冬, 其氣曰寒, 寒生水與血, 其德淳越溫怒周密).”²⁾

『淮南子·天文訓』: “무엇을 오성이라고 하는가? 동방은 목이다. 그곳의 帝는 태호이고 그 보좌는 구망이 하며, 컴퍼스(規)를 쥐고 봄을 다스린다. 그 신은 세성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창룡, 그 소리는 각, 그 날을 갑을이다. 남방은 화이다. 그곳의 帝는 염제, 그 보좌는 주명이 하며, 저울(衡)을 쥐고 여름을 다스린다. 그 신은 형혹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주조, 그 소리는 치, 그 날은 병정이다. 중앙은 토이다. 그곳의 帝는 황제이고, 그 보좌는 후도가 하며, 먹줄(繩)을 쥐고 사방을 제어한다. 그 신은 진성(鎮星)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황룡, 그 소리는 궁, 그 날은 무기이다. 서방은 금이다. 그곳의 帝는 소호이고, 그 보좌는 옥수가 하며, 자(矩)를 쥐고 가을을 다스린다. 그 신은

2)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2004: 842-854.

태백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백호, 그 소리는 상, 그 날은 경신이다. 북방은 수이다. 그 帝는 전욱, 그 보좌는 현명이 하며, 저울추(權)를 쥐고 거울을 다스린다. 그 신은 진성(辰星)이라고 하고, 그 짐승은 현무, 그 소리는 우, 그 날은 임계이다(何謂五星? 東方, 木也, 其帝太皞, 其佐句芒, 執規而治春; 其神爲歲星, 其獸蒼龍, 其音角, 其日甲乙. 南方, 火也, 其帝炎帝, 其佐朱明, 執衡而治夏; 其神爲熒惑, 其獸朱鳥, 其音徵, 其日丙丁. 中央, 土也, 其帝黃帝, 其佐後土, 執繩而制四方; 其神爲鎮星, 其獸黃龍, 其音宮, 其日戊己. 西方, 金也, 其帝少昊, 其佐蓐收, 執矩而治秋; 其神爲太白, 其獸白虎, 其音商, 其日庚辛. 北方, 水也, 其帝顓頊, 其佐玄冥, 執權而治冬; 其神爲辰星, 其獸玄武, 其音羽, 其日壬癸).³⁾

이상 문장의 대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섯 방위를 중심으로 帝, 보좌(佐), 계절, 氣, 神, 獸, 音, 日 등의 인격적, 추상적, 물질적 계통의 요소가 분류 배속되었다. 정확히 언급하자면, 각각의 방위에 사계절이라는 자연 현상의 순환이 맞물렸으며, 존귀한 존재와 자연계의 만사만물이 각각 체계적으로 배속된 형태를 보인다. 흥미로운 부분은 전국시대 이후 만들어진 목, 화, 토, 금, 수라는 五行 또한 다섯 방위에 분류 배속되어 있으며, ‘동방은 목이다. ……남방은 화이다. ……중앙은 토이다. ……서방은 금이다. ……북방은 수이다.’라는 형태로 각 방위와 요소는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 내용은 방향과 공간 구분이라는 실질적 개념과 전국시대 이후 정리되어 활용된 다섯 요소의 순환에 근거한 상생상극이론이 결합되어 편집 관리된 형태이다.⁴⁾

이렇듯 五方의 형태를 중심으로 그 확대된 개념은 동아시아 고대인들의 사상과 생활에 점차 폭넓게 침투되었고, 『文子·微明』에서 “天에는 오방이 있고, 地에는 오행이 있다. 聲에는 오음이 있고, 物에는 오미가 있으며 色에는 오장이 있고, 人에는 오위가 있다(天有五方, 地有五行, 聲有五音, 物有五味, 色有五章, 人有五位).”라고 서술된 부분과 증의경전의 『黃帝內經·素問·天元紀大論』에서 “황제가 물었다. 天에는 오행이 있어 五位를 다스리며, 이로써 寒, 暑, 燥, 濕, 風이 발생한다.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어 오장의 기를 변화하며, 이로써 喜, 怒, 思, 憂,

3) 何寧 撰, 『淮南子集釋』, 1998: 183-188.

4) 박성우, 「殷商과 周代 출토문헌에 보이는 五方의 확대 형태」, 『中語中文學』, 第87輯, 2022.

恐이 발생한다(黃帝問曰: 天有五行, 御五位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藏, 化五氣, 以生喜怒思憂恐).”라고 서술되었듯이 여러 다른 분야에 다섯 형태의 구분이 적용되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 또한 이 五方に 배속되어 있는 한 계통을 분석하는 것으로, 바로 五獸에 대한 검토이다. 위 제시한 『淮南子』의 기록에 따르면 五獸 즉, 다섯 짐승은 동방 창룡, 남방 주조, 중앙 황룡, 서방 백호, 북방 현무로 등장하는데, 이는 色을 의미하는 푸를 蒼, 붉을 朱, 누를 黃, 흰 白, 검을 玄 등과 함께 동물 龍, 鳥, 龍, 虎, 武를 순서적으로 붙여 각 방위를 상징하며 나타난 것이다.

동물이나 자연 현상을 이용해 관작을 명명한 형태는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左傳』 昭公17年の “五雉로 五工正을 삼다(五雉爲五工正).”라고 하여 杜預 注의 “五雉의 雉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西方의 雉를 鷦雉라고 하고, 東方의 雉를 鷦雉라고 하며, 南方의 雉를 翟雉라고 한다. 北方의 雉를 鷦雉라고 하고, 이수와 낙수 남쪽의 雉를 翟雉라고 한다(五雉, 雉有五種, 西方曰鷦雉, 東方曰鷦雉, 南方曰翟雉, 北方曰鷦, 伊洛之南曰翟).”라는 기록과 『周禮·春官宗伯』의 “인사로써 호천상제에게 제사 지내고, 실시로써 해와 달과 별들에 제사 지내며, 유료로써 司中·司命·風師·雨師에게 제사 지낸다(以禮祀昊天上帝, 以實柴祀日月星辰, 以粢燎祀司中, 司命, 風師, 雨師).”라고 하여 짐승 또는 자연 친화적인 이름들을 활용해 명명한 사례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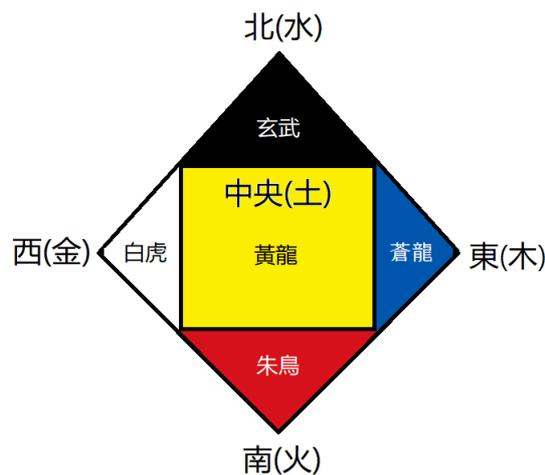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동물과 함께 각 방위를 대표하는 다섯 색깔을 묶어 배속한 형태에 집중하여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발전되어 활용되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영토적 공간을 다섯 형태로 구분한 五方 체계에서 점차 확대 변천되며 여러 분야에 적용되었다는 선행 분석을 토대로, 문헌에 보이는 다섯 방위의 五獸 형태를 정리 범주하고, 전체적인 발전 체계의 경위를 구체화하여 五獸의 전체적인 형성 과정을 규명해 보도록 한다.

2. 전래 문헌에 보이는 五獸의 형태

전래 문헌의 기록을 보면, 다섯 방위를 구분하여 인간계와 자연계의 만사 만물을 각각의 규칙과 체계에 따라 분류 배속하였고, 五獸 역시 이 체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방위에 배속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五獸의 전체적인 배속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전래 문헌 자료에 보이는 五獸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 언급하였던 『淮南子·天文訓』에 보이는 다섯 동물의 형태를 제시하고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淮南子·天文訓』: “동방은 목이다. ……그 짐승은 창룡, 그 소리는 각, 그 날은 갑을이다. 남방은 화이다. ……그 짐승은 주조, 그 소리는 치, 그 날은 병정이다. 중앙은 토이다. ……그 짐승은 황룡, 그 소리는 궁, 그 날은 무기이다. 서방은 금이다. ……그 짐승은 백호, 그 소리는 상, 그 날은 경신이다. 북방은 수이다. ……그 짐승은 현무, 그 소리는 우, 그 날은 임계이다(東方, 木也, ……其獸蒼龍, 其音角, 其日甲乙. 南方, 火也, ……其獸朱鳥, 其音徵, 其日丙丁. 中央, 土也, ……其獸黃龍, 其音宮, 其日戊己. 西方, 金也, ……其獸白虎, 其音商, 其日庚辛. 北方, 水也, ……其獸玄武, 其音羽, 其日壬癸).”



〔그림 1〕 五方과 五獸 정리

전한 시기 劉安이 저술한 『淮南子·天文訓』 편에는 동방은 창룡(蒼龍), 남방은 주조(朱鳥),⁵⁾ 중앙은 황룡(黃龍), 서방은 백호(白虎), 북방은 현무(玄武)가 각각 배속되었고, 동-남-중앙-서-북 형태의 오행 상생 이론을 바탕으로 두고 서술되었다. 이 밖에 『淮南子』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吳子·治兵』에서는 “반드시 왼쪽은 靑龍, 오른쪽은 白虎, 앞은 朱雀, 뒤는 玄武 깃발을 세우고, 招搖旗를 (中軍의) 가운데에 세워 아래에서 지휘한다(必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 招搖在上, 從事於下).”라고 하여 북쪽을 등지고 ‘왼쪽=동쪽=靑龍’, ‘오른쪽=서쪽=白虎’, ‘앞쪽=남쪽=朱雀’, ‘뒤쪽=북쪽=玄武’, ‘중앙=招搖’로 사방에 배속된 동물이 『淮南子』와 동일하며, 단지 방위를 동-서, 남-북의 대치된 구조로 배치 서술하였다. 특히 후대 문헌에 보이는 중앙 黃龍은 확인되지 않으며, 지휘 용도의 招搖旗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해 중앙 공간을 독립적이고 사방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로 강조하였다. 또한 『禮記·曲禮上』에서 “앞은 朱鳥, 뒤는 玄武이고, 좌는 靑龍, 우는 白虎 기를 세우고 招搖旗를 (中軍의) 가운데에 세워 사졸들의 전투 기세를 중요히 다스린다(前朱鳥而後玄武, 左靑龍而右白虎. 招搖在上, 急繕其怒).”라고 하여 『吳子·治兵』의 문장과 동일하게 서술되었고, 이에 漢代 이전 시기의 전래 문헌에서는 四獸, 즉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을 상징하는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 등의 네 동물만 등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春秋 시대 管仲의 사상이 담긴 『管子』의 「幼官」 편에서는 위와 다른 형태의 동물이 다섯 방위에 배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幼官」: “五和時節에 군주는 황색 옷을 입고, 단맛을 맛보고, 宮聲을 들으며, 和氣를 다스린다. 五數를 사용하고, 黃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倮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이는 圖의 方中에 있어야 한다. ……八學時節에 군주는 청색 옷을 입고, 신맛을 맛보고, 角聲을 들으며, 燥氣를 다스린다. 八數를 사용하고, 靑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羽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이는 圖의 東方 方外에 위치한다. ……七學時節에 군주는 붉은색 옷을 입고, 쓴맛을 맛보고, 羽聲을 들으며, 陽氣를 다스린다. 七數를 사용하고, 赤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毛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이는 圖의 南方 方外에 위치한다. ……”

5) 高誘注에서 ‘주조는 주작이라고도 한다(朱鳥, 朱雀也).’라고 하였다. 黃暉, 『論衡校釋』(全四冊), 1990: 150.

九和時節에 군주는 흰색 옷을 입고, 매운맛을 맛보고, 商聲을 들으며, 溼氣를 다스린다. 九數를 사용하고, 白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介蟲의 火로 밥을 짓는다. ……이는 圖의 西方 方外에 위치한다. ……六行時節에 군주는 검은색 옷을 입고, 짠맛을 맛보고, 微聲을 들으며, 陰氣를 다스린다. 六數를 사용하고, 黑后의 井에서 물을 마시며, 鱗獸의 火로 밥을 짓는다. ……이는 圖의 北方 方外에 위치한다. ……”⁶⁾

[표 1] 『管子·幼官』의 다섯 분류표

五方	中央	東	南	西	北
時期	五和時節	八舉時節	七舉時節	九和時節	六行時節
四時	—	봄	여름	가을	겨울
五色	黃色	青色	赤色	白色	黑色
五獸	倮獸	羽獸	毛獸	介蟲	鱗獸

이상 「幼官」 편 또한 앞서 제시한 문헌 용례와 유사한 형태로 방위와 사시가 연계되어 복식, 맛, 소리, 색깔, 숫자 등의 서로 다른 분야가 분류 범주화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방위에 배속된 다섯 동물이 中央-倮獸, 東方-羽獸, 南方-毛獸, 西方-介蟲, 北方-鱗獸 등의 형태를 보여 명시적으로 동물을 제시한 다른 문헌보다 비교적 포괄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 배속되었으며, 漢代 『大戴禮記』 「曾子天圓」 편의 “털이 있는 벌레의 정수한 것은 기린이라 하고, 날개 있는 벌레의 정수한 것은 봉황이라 하며, 껍질 있는 벌레의 정수한 것은 거북이라 하고, 비늘 있는 벌레의 정수한 것은 용이라 하며, 털이 없는 벌레의 정수한 것은 성인이라 한다(毛蟲之精者曰麟, 羽蟲之精者曰鳳, 介蟲之精者曰龜, 鱗蟲之精者曰龍, 倮蟲之精者曰聖人).”라는 구절을 참고하여 각각 방위의 대표되는 구체적인 동물을 짐작할 수 있다.

6) “五和時節, 君服黃色, 味甘味, 聽宮聲, 治和氣, 用五數, 飲於黃后之井, 以倮獸之火爨, ……此居圖方中. ……八舉時節, 君服青色, 味酸味, 聽角聲, 治燥氣, 用八數, 飲於青后之井, 以羽獸之火爨, ……此居於圖東方方外. ……七舉時節, 君服赤色, 味苦味, 聽羽聲, 治陽氣, 用七數, 飲於赤后之井, 以毛獸之火爨, ……此居於圖南方方外. ……九和時節, 君服白色, 味辛味, 聽商聲, 治溼氣, 用九數, 飲於白后之井, 以介蟲之火爨, ……此居於圖西方方外. ……六行時節, 君服黑色, 味鹹味, 聽徵聲, 治陰氣, 用六數, 飲於黑后之井, 以鱗獸之火爨, ……此居於圖北方方外.”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2004: 135-158.

이 외에도 『周禮·考工記·梓人』에서 “천하의 큰 짐승은 5가지인데 비계가 있는 것, 지방이 있는 것, 털이 없는 것, 깃이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이다(天下之大獸五: 脂者, 膏者, 裸者, 羽者, 鱗者).”라고 하여 「幼官」 편과 유사한 형태로 동물 특징에 따라 서술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五獸의 형태와 관련하여 『五行大義』의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蕭吉이 찬술한 『五行大義』는 이상 제시한 몇몇 문헌보다 한참 후대인 隋代의 자료이지만, 이전 전적들의 오행과 관련된 기록을 참고 발췌하여 오행의 정의에서부터 천문, 지리, 상승이론, 간지와와의 배합, 칠정, 정치, 벼슬, 왕조의 변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풀이 내용을 집대성하여 분류 정리하였다.

『五行大義』에서는 단 한 차례 ‘五獸’라는 단어가 등장하며,⁷⁾ 다섯 동물의 명칭은 문헌 곳곳에 산견되어 있다.

「第二十一論五帝」: “그러므로 녹도에 이르기를 ‘동방의 창제는 본체가 창룡이고,남방의 적제는 본체가 주조이고,중양의 황제는 본체가 현원이고,서방의 백제는 본체가 백호이고,북방의 흑제는 본체가 현무이다’라고 하였다(故錄圖云: 東方蒼帝, 體爲蒼龍,南方赤帝, 體爲朱鳥,中央黃帝, 體爲軒轅,西方白帝, 體爲白虎,北方黑帝, 體爲玄武).”

「第二十三論諸人·人配五行」: “앞은 주작이고, 뒤는 현무이며, 좌는 청룡이고, 우는 백호이니 이를 四體라 한다. 머리는 구진으로 이것은 몸의 주인이다(前爲朱雀, 後爲玄武, 左爲青龍, 右爲白虎, 是曰四體, 頭爲勾陳, 是身之主).”

「第二十四論禽蟲·五靈」: “史蘇龜經에서 이르기를 木의 신 창룡은 세성의 정수이고, 화의 신 주작은 형혹성의 정수이며, 회토의 신은 이름이 등사이고, 토의 신 구진은 진성의 정수이며, 금의 신 백호는 태백성의 정수이고, 수의 신 현무는 진성의 정수이다(史蘇龜經云: 木神蒼龍, 歲星之精, 火神朱雀, 熒惑之精, 灰土之神, 名曰騰蛇, 土神勾陳, 鎮星之精, 金神白虎, 太白之精, 水神

7) 「第二十四論禽蟲·五靈」: “채옹의 『월령장구』에서 말하길 천관의 오수는 ‘왼쪽 창룡은 대진의 모습이고, 오른쪽 백호는 대량의 무늬이며, 앞 주작은 순화의 몸체이고, 뒤 현무는 거북과 뱀의 체질이며, 중앙 대각은 현원, 기린의 신의이다’라고 하였다(案蔡邕『月令章句』言: 天官五獸, 左蒼龍, 大辰之貌, 右白虎, 大梁之文, 前朱雀, 鶉火之體, 後玄武, 龜蛇之質, 中有大角軒轅, 麒麟之信).” 王雲五 主編, 『五行大義·卷五』, 『叢書集成』, 1937: 33.

玄武, 辰星之精).”

『第二十四論蟲禽·五靈』: “또한 용은 수에서 나서 목에서 놀고, 새는 목에서 나서 화에서 놀며, 기린은 화에서 나서 토에서 놀고, 호랑이는 토에서 나서 금에서 놀며, 거북은 금에서 나서 수에서 노니 그 어미가 닭이면 그 자식에게 도달한다(亦龍生於水, 游於木, 鳥生於木, 游於火, 麟生於火, 游於土, 虎生於土, 游於金, 龜生於金, 游於水, 修其母, 致其子).”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五方に 배속된 동물들과 인물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五行大義』 편목별 오수 구분표

구분	동방	서방	중앙	남방	북방
第二十一論五帝	창룡	백호	현원	주조	현무
第二十三論諸人·人配五行	청룡	백호	구진	주작	현무
第二十四論禽蟲·五靈	창룡	백호	등사/구진	주작	현무
第二十四論蟲禽·五靈	용	호랑이	기린	새	거북

정리된 [표 2]를 통해 드러나듯이 동·서·남·북 네 방위에는 각각 동일한 동물이 배속되었지만, 특이하게도 중앙을 나타내는 토에는 문헌에 따라 등사, 구진, 기린 등의 서로 다른 동물이 배속되었거나, 동물이 아닌 五帝의 중앙에 배속된 현원이 대입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중앙에 배속된 대상이 교체되는 현상은 중앙 토를 네 방위와 다른 단독적인 특수 공간으로 인식하고, 사행에 영향력을 끼치는 중앙 공간과 이 공간에 배속된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중앙 토를 중시하여 부각시키고자 했던 인식은 고대 문헌을 통해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몇몇 용례를 제시하면:

『管子·四時』: “중앙은 토이다. 토덕은 사시의 시작과 끝을 충실히 돕고, 바람과 비로 토를 조절하여 이롭게 한다(中央曰土, 土德實輔四時出入, 以風雨節土益力).”

『國語·鄭語』: “그러므로 선왕은 토와 금·목·수·화를 배합하여 만물을 만들었다(故先王以土與金木水火雜, 以成百物).”

『春秋繁露·五行之義』: “土는 중앙에 자리하므로 天의 은덕이라 한다. 土는 天의 가장 신임하는 신하이다. 그 덕은 무성히 아름다워 한 계절의 일로 명명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오행이지만 四時만 언급한 것이다. 토가 그 모든 것을 아우른다(土居中央, 爲之天潤. 土者, 天之股肱也. 其德茂美, 不可名以一時之事, 故五行而四時者, 土兼之也).”

『春秋繁露·五行對』: “오행에서 토보다 귀한 것은 없다. 토는 사시에 命을 받은 바 없고, 火와 공명을 나누지도 않는다. 목은 봄이라 명칭하고, 화는 여름이라 명칭하며, 금은 가을이라 명칭하고, 수는 겨울이라 명칭한다. 충신의 충의, 효자의 효행은 토에서 취한 것이다. 토는 오행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의로움을 더할 수 없다(五行莫貴於土. 土之於四時無所命者, 不與火分功名. 木名春, 火名夏, 金名秋, 水名冬. 忠臣之義, 孝子之行, 取之土. 土者, 五行最貴者也, 其義不可以加矣).”

이렇듯 지리적 영역의 중앙 土 공간이 강조되었고, 중앙의 공간에서 사방의 만사 만물을 제어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연계에 발생하는 현상까지 주재한다는 천하 중심주의의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⁸⁾ 특히 『第二十一論五帝』에서는 중앙 土에 현원을 배치하여 지배층이 속한 중앙에서 자연계의 모든 객체를 통제 조절할 수 있다는 고대 사람들의 사유체계가 적용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이러한 구조는 지배층 중심 공간이 중앙을 의미한다는 관념에서 시작된 현상으로, 점차 확대 발전되어 『國語·吳語』에서는 “저 월왕 구천은 신의를 좋아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四方의 민심이 따르며 해마다 곡식이 때때로 풍성하니 국력이 날로 융성해지고 있습니다(夫越王好信以愛民, 四方歸之, 年穀時熟, 日長炎炎).” 라는 구절과 같이 각각의 선별된 중요 인물이 중앙을 점유한 중심 대상이 되어 독자적 형태의 사방을 구축하였고, 중앙으로부터 영향력 내에 속한 사방의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 범도에 활용하였다.

8) 박성우, 문치웅, 『五行 이론으로 본 五帝의 기원과 형성』, 『동양고전연구』 第87輯, 2022.

이러한 독자적 형태의 중앙은 후대로 갈수록 더욱 발전되었고 『五行大義』에서 더욱 명시적인 형태를 보이는데, 「第二十四論禽蟲」의 “나라의 임금이 행차하면 앞에는 주작, 뒤에는 현무, 왼쪽은 창룡, 오른쪽은 백호가 있다(國君行前朱雀, 後玄武, 左蒼龍, 右白虎).”와 「第二十四論禽蟲」의 “『상서형덕방』에 말하기를 ‘동방은 봄이고 창룡이며 지혜롭고 어질다. 남방은 여름이고 주작이며 예가 좋다. 서방은 가을이고 백호이며 의리 있는 일을 집행한다. 북방은 겨울이고 현구이며 신실함을 주관한다. 중앙토의 정기에 모인다고 하였다(『尚書刑德放』言, 東方, 春, 蒼龍, 其智仁. 南方, 夏, 朱鳥, 好禮. 西方, 秋, 白虎, 執義. 北方, 冬, 玄龜, 主信. 會中央土之精).”와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토가 五方 체계에 배속되어 있는 동시에 四方의 발원지 또는 四方을 모두 아우르는 특수 공간으로 인식한 고대인들의 사유체계가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정치체의 점유 공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상징 동물이 중앙에 배속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즉, 지배층이 속한 공간 중앙 토를 독자적인 형태로 강조하려는 시도에서 五獸에 속하는 중앙 토의 상징 동물 또한 다른 동물로 표현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다섯 동물의 본래 來源은 무엇인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출토자료와 전래문헌을 통하여 추적해 보도록 한다.

3. 문헌에 근거한 五獸의 형성

전래문헌에 보이는 五獸는 동물의 포괄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 배속한 형태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중앙에는 황룡, 구진, 기린 또는 현원이라는 대상이 선택적으로 교체 배속되었고, 四方에는 동-창룡, 서-백호, 남-주조, 북-현무리는 고정된 형태를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다섯 동물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본 장에서는 五獸의 근원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地下와 紙上의 문헌을 함께 살펴 보도록 한다. 먼저, 비교적 이른 시기의 출토문헌인 殷商 갑골문 자료에서 단서

를 추적해 보고, 아울러 앞서 살펴본 전래문헌 기록의 주석 자료를 참고해 보도록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殷商 시기 갑골문을 보면 지배층 공간을 중앙으로 삼고 패권을 장악한 공간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방위를 향한 모종의 의식 행위 또는 각 방위를 주재하는 책임자를 지칭하는 듯한 형태로 확대 발전되었다. 또한 지배층 집단의 공간을 ‘商’, ‘大邑商’, ‘天邑商’, ‘中商’, ‘丘商’ 등으로 칭하여 거쳐 공간의 영토를 중앙이자 중심지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더욱이 이러한 표현법은 후대로 보존 계승되어 『逸周書·作雒解』의 “정권을 (成王) 군주에게 물려줄 때, 또 중앙에 대읍 성주를 짓고 성 안을 천칠백이십 장으로 정하고, 성 밖을 칠십이 리로 정하여(及將致政, 乃作大邑成周于土中, 立城方千七百二十丈, 郭方七十里)”라고 하여 정치체 집단의 중앙 정권의 중요 공간을 ‘중앙’으로 나타내는 서술 방식을 보이기도 한다.

이 밖에도 은상 갑골문에는 중앙을 나타내는 商을 중심으로 사방의 여러 정치체 집단의 명칭을 살펴볼 수 있고, 이들 중에서는 龍, 鳥, 雀, 虎, 武 등의 五獸에 배속되어 있는 동물로 집단의 칭호를 명명한 용례 또한 확인할 수 있다.

(1) 龍

貞: 王夷(惠)龍方伐. (『合』 6476)
점치기를, 왕은 龍方을 공격할 것이다.

王勿惟龍方伐. (『合』 6476)
왕은 龍方을 공격하지 말라.

丙午卜, 扶, 令龍以舊示  (東隗)⁹⁾. 八月. (『合』 20741)
丙午일에 균열을 내어 扶가 묻기를: 龍方에게 제물로써 舊示의 제사를 명할 것이다. 8월.

甲午卜, 龍擒貝. 二月. (『合』 22391)

9) 孫亞冰, 林歡의 자형 고석을 참고하였다. 孫亞冰, 林歡, 『商代地理與方國』, 2010: 285-286.

甲午일에 균열을 내어 묻기를: 龍方은 貝를 붙잡을 것이다. 2월.

(2) 虎

□□卜, □, 貞: 令望(乘)眾輿其兪(會)¹⁰虎方, 告于祖乙. 十一月.
(『合』 6667.1)

□□일에 균열을 내어 □가 짐치기를, 望(乘)과 輿가 虎方을 영접할 것이다. 祖乙에게 고합니다. 12월.

□□卜, □, 貞: 令望乘眾輿其兪(會)虎方, 告于大甲. 十一月. (『合』 6667.4)

□□일에 균열을 내어 □가 짐치기를, 望乘과 輿가 虎方을 영접할 것이다. 大甲에게 고합니다. 11월.

□□卜, □, 貞: 令望乘眾輿其兪(會)虎方. 十一月. (『合』 6667.5)

□□일에 균열을 내어 □가 짐치기를, 望乘과 輿가 虎方을 영접할 것이다. 11월.

乙亥卜, 貞: 令虎追方. (『合』 20463反)

乙亥일에 균열을 내어 짐치기를, 虎方에게 敵方을 추격하라고 명할 것이다.

(3) 鳥 또는 雀

……由友佳……于鳥. (『合』 8239)

……由友는……鳥方에서 ……

……取由友于鳥. (『合』 8240反)

……鳥方에서 由友를 얻다.

乙巳卜, 爭, 貞: 雀弗其隻(獲)亘, 二告. (『合』 6952正)

乙巳일에 균열을 내어 爭이 짐치기를, 雀方은 亘을 포획할 수 없다. 두 번째 고하다.

癸丑卜, 賓, 貞: 于雀章(墉). (『合』 13515)

癸丑일에 균열을 내어 賓이 짐치기를, 雀方에 성을 축조할 것이다.

10) 朱鳳瀚이 '會'를 '會'로 고석한 견해를 참고하였다. 朱鳳瀚, 「再讀殷墟卜辭中的'衆」, 『古文字與古代史』第二輯, 2009.

(4) 武

乙未卜, 賓, 貞: 以武芻. (『合』 456正.7)

乙未일에 균열을 내어 賓이 짐치기를, 武方의 사람을 거느리고 짐승 사육의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상 용례에서 제시하였듯이 龍, 虎, 雀, 武는 殷商 시기 정치체 집단의 명칭으로, 이 중에서 (3)의 (『合』 8239), (『合』 8240反)은 꺾문으로 인하여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갑골문 ‘于’가 주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 놓여 전치사로 사용된 문장 서술 구조에 근거한다면, ‘鳥’ 또한 틀림없는 하나의 지명을 말한다.

우선적으로 이상 명명된 지명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점유 공간의 위치와 오방 체계의 관계일 것이다. 殷商 시기 지리와 영토를 분석한 선행 연구와 함께 문헌 자료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龍方’은 殷商 시기의 때에 따라서 商王의 명령을 따르는 군신 관계의 속국 또는 대적 관계의 적국에 해당했으며 흉노 지역에 위치했다는 견해, 서북지역 또는 동북 지역에 위치했다는 견해, 『水經注』의 ‘龍鄉’으로 지금의 山東省 부근에 위치했다는 견해, 殷 서북지역의 羌方, 彭, 耳에 근접해 있다는 견해 등 서로 대립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¹¹⁾

현재까지도 龍方の 위치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오방 체계에 근거해 殷商을 중앙으로 삼아 사방을 구분한다면 龍은 동쪽지역 즉, 山東省 부근에 위치했다는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록 앞서 제시한 『水經注』는 물길을 바탕으로 찬술된 고대 지리 연구의 중요 저서로 평가받고 있지만, 殷商보다 한참 후대인 北魏 시기에 들어와서야 주석하며 정리된 저작으로, 殷商 시기에 소급 적용하여 龍方の 위치를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제시된 「卷二十四」 ‘龍鄉’의 위치가 山東省 지역으로 확인되지만,¹²⁾ 이 또한 『春秋·成公二年』의 기록을 통해 주해하고 있어 殷商 ‘龍方’과의 관계 입증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中國歷史地圖集』의 기록을 참고 제시한다면 殷商시

11) 孫亞冰, 林歡, 『商代地理與方國』, 2010: 285-289.

12) 酈道元 著, 『水經注』, 1985: 413.

기의 '龍方'의 영토는 殷商 중심지 安陽으로부터 서북부 熏育 부근에 위치해 있다.¹³⁾

'虎方'은 위 제시한 『습』 20463反의 '敵方의 추격을 명령 한다'는 구절에 근거해 보면 商 왕조의 명령을 하달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西周 청동기 명문을 통해 위치를 추적해 보면, 西周 초기 中鼎(『集成』 2751)의 명문에서 "왕이 남궁에게 반란군 호방의 토벌을 명한 해이다. 왕은 중에게 먼저 가서 남쪽 지방의 연결된 길을 시찰할 것을 명하고(隹{唯}王命南宮伐反虎方之年, 王命_中先_省南或_貫行)."라는 내용을 통하여 虎方은 南方 지역에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西周 중기에 속하는 기물 史密簋(『新收』 636)의 명문 "南夷의 膚와 虎가 杞夷, 舟夷와 회합하여.....(𠩺南尸{夷}膚虎會杞尸{夷}, 舟尸{夷}.....)"라는 虎를 南夷로 명칭한 구절을 통하여 西周 중기 이후에 虎는 西周 중심지역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殷商 시기 虎方の 위치에 대하여 江淮 유역이었다는 견해,¹⁴⁾ 河南省 息縣과 商城縣 사이의 淮水 부근이었다는 견해,¹⁵⁾ 지금의 漢水 이북에 위치한 安陸, 京山 이남 지역이었다는 견해를¹⁶⁾ 확인할 수 있고, 근거 자료를 종합해보면 비교적 동남쪽 혹은 남쪽 지역의 영토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雀方'의 '雀'은 대부분 1기와 4기 복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명, 지명 등의 의미로 쓰였다. 갑골 자료에 보이는 '雀方'은 殷과 우호 관계의 정치체 집단으로 殷 왕조에 복종하였으며, 山西 남쪽에 위치한 '𠩺', '戍', '𠩺' 등의 다른 지명과 인접한 것에 근거하여 殷의 서쪽 지역 山西省 서남부 또는 河南省 서북부 일각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¹⁷⁾

'武'는 『漢書·地理志』에 근거하면 信都國의 17개 縣 중에 한곳으로,¹⁸⁾ 지금의

13)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一冊: 原始社會、夏、商、西周、春秋、戰國時期』, 1996: 11-12.

14) 郭沫若, 『周代金文圖錄及釋文(精裝三巨冊)』, 1971: 17.

15) 鍾柏生, 『殷商卜辭地理論叢』, 1989: 223.

16) 孫亞冰, 林歡, 『商代地理與方國』, 2010: 436.

17) 鍾柏生, 『殷商卜辭地理論叢』, 1989: 187.

18) [漢] 班固 撰, 『漢書』(第六冊), 1964: 1633.

河北省 文安縣을 말한다. 그러나 殷商 시기부터 漢代에 이르기까지 영토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후대에 전해졌다는 근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더욱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한정된 갑골 자료의 수량으로 인하여 殷商시기 '武' 영토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쉽지 않다.

이상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殷商 시기 龍, 雀, 虎, 武라는 방국의 위치는 대체적으로 河北省, 山西省, 河南省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대부분 당대로부터 비교적 후대의 문헌 기록이 바탕을 이뤄 도출된 결과이며, 五方に 배속된 동-龍, 서-虎, 남-雀, 북-武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아 五方 체계와 방국 명칭의 관계 입증은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五方に 속한 동물이 殷商 시기 방국의 명칭으로 등장하는 것에 의의를 두며, 동물로 방국을 명명한 선택 기준의 과정과 함께 五方과의 관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의 발견과 아울러 기존 자료에 보이는 영토에 대한 추가 검토 자료의 축적이 필요해 보인다.

앞장에서 살펴본 전래문헌 용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한다. 『吳子·治兵』의 “반드시 왼쪽은 靑龍, 오른쪽은 白虎, 앞은 朱雀, 뒤는 玄武 깃발을 세우고, 招搖旗를 (中軍의) 가운데에 세워 아래에서 지휘한다(必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 招搖在上, 從事於下).”라고 하였고, 『禮記·曲禮上』에서 또한 “앞은 朱鳥, 뒤는 玄武이고, 좌는 靑龍, 우는 白虎 기를 세우고 招搖旗를 (中軍의) 가운데에 세워 사졸들의 전투 기세를 중요히 다스린다(前朱鳥而後玄武, 左靑龍而右白虎. 招搖在上, 急繕其怒).”라고 하여 동쪽에는 靑龍, 서쪽에는 白虎, 남쪽에는 朱雀, 북쪽에는 玄武, 중앙에는 招搖旗를 구성하였다. 이상 구절의 鄭玄 注를 보면, “招搖는 북두칠성의 자루 끝에 있고, 주지한 별이다(招搖在北斗杓端, 主指者).”¹⁹⁾라고 풀이하여 중앙 招搖旗의 招搖를 북두칠성의 일곱 번째 별, 즉 국자의 자루 끝 부분에 위치한 별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論衡·物勢』에서 “동방은 목이다. 그 별은 창룡이다. 서방은 금이다. 그 별은 백호이다. 남방은 화다. 그 별은 주조이다. 북방은 수다. 그 별은 현무이다. 하늘에는 네 별의 정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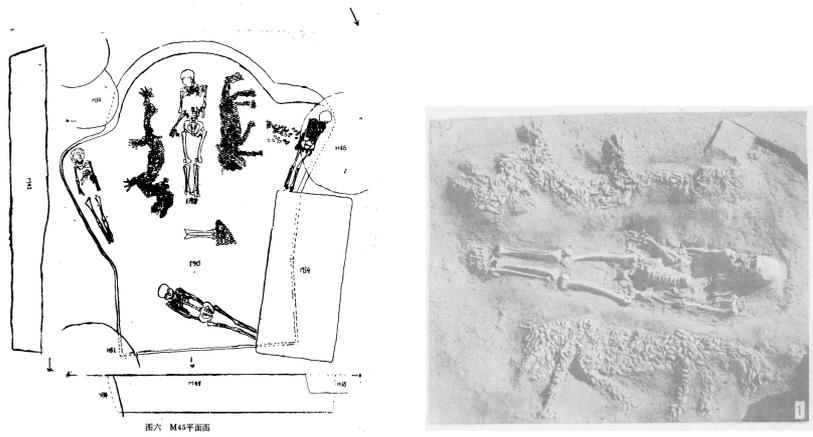
19) [清] 孫希旦, 『禮記集解(全三冊)』, 1989: 84.

있고, 네 동물의 몸체를 낳았다(東方木也, 其星蒼龍也. 西方金也, 其星白虎也. 南方火也, 其星朱鳥也. 北方水也, 其星玄武也. 天有四星之精, 降生四獸之體).” 라는 동·서·남·북 네 별의 정수가 바로 북두칠성의 일곱 번째 별 招搖를 나타낸다고 짐작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이다.

다시 말해서 지상의 패권을 장악한 공간을 동·서·남·북·중의 형태로 구분하였다면, 이 방위 구조 체계를 천문에 또한 동일하게 적용시켜 북극을 중심으로 천체를 다섯 방위로 구분해 관측한 동시에 전쟁과 농사 등의 중대한 일정에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擬明月皎夜光』에서 “초요가 서북을 가리키니 은하수는 동남쪽으로 기운다(招搖西北指, 天漢東南傾).”²⁰⁾라고 하여 북극에 위치한 招搖를 천문 운행의 기준으로 삼아 천체의 변화를 서술한 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三輔黃圖』의 “창룡, 백호, 주작, 현무는 天의 四靈으로, 사방을 바르게 하여 왕의 궁전 누각을 만들 때에 본보기를 삼았다(蒼龍·白虎·朱雀·玄武, 天之四靈, 以正四方, 王者制宮闕殿閣取法焉).”²¹⁾라고 하여 다섯 짐승의 출처와 이에 대한 지상에서의 활용이 축약되어 서술되기도 하였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으로 일찍이 河南省 濮陽縣 西水坡에서 지금으로부터 6500년 전 시기의 仰韶문화 유적이 발견되었고 M45 고분에서 고분 주인과 조개껍데기로 수놓은 동물이 확인되었는데,²²⁾ 이는 오수의 기초 형태로 볼 수 있는 고고학 자료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골은 고분 중앙에 위치하며 몸은 반듯이 누운 자세로 머리는 남쪽, 다리는 북쪽을 향해 북극과 서로 대응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쪽 측면에는 조개껍질로 만들어진 마치 한 마리의 용과 호랑이를 연상시키는 동물이 위치해 있다. 용으로 인식되는 동물은 인골의 우측에 있고, 머리는 북쪽, 등은 서쪽을 향하며 몸은 굽은 형태를 보인다. 또한 호랑이로 인식되는 동물은 인골의 좌측에 있고, 머리는 북쪽, 등은 동쪽을 향하여 마치 묘주를 양 측면에서 보위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아래 발굴된 상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20) [晉] 陸機 著; 楊明 校箋, 『陸機集校箋·上』, 2016: 330.
 21) 何清谷 校注, 『三輔黃圖校注』, 2006: 190.
 22) 濮陽市文物管理委員會, 濮陽市博物館·文物隊, 「濮陽西水坡遺址試掘簡報」, 『中原文物』第一期, 1988.



[그림 2] M45평면도²³⁾

주의해서 볼 만한 부분으로 이상 [그림 2]의 묘주 양 측면의 두 짐승을 五獸의 용과 호랑이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漢代의 瓦當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3]



[그림 3] 漢代의 瓦當 문양

23) 濮陽市文物管理委員會, 濮陽市博物館·文物隊, 「濮陽西水坡遺址試掘簡報」, 『中原文物』第一期, 1988: 5, 23.
 24) http://www.chnmus.net/sitesources/hnsbwy/page_pc/dzjp/zpjc/tq/articleb7c06f244ee54ee8a7251882fc6698cf.html, 河南博物院
 25) http://www.chnmus.net/sitesources/hnsbwy/page_pc/dzjp/zpjc/tq/articlef1cd4159d5274d47a55c78587792cda1.html, 河南博物院

이상 河南博物院에 소장된 漢代 와당에 보이는 용과 호랑이 문양은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두 짐승의 형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또한 와당의 두 짐승을 [그림 2]의 묘주 양 옆의 동물과 비교해도 매우 유사하다. [그림 3] 왼쪽 용의 네 발과 꼬리, 특히 머리를 긴 타원형으로 나타낸 부분이 [그림 2] 왼쪽의 동물과 매우 흡사하며, [그림 3] 오른쪽 호랑이의 네 발과 꼬리, 특히 둥근 형태의 머리로 표현한 부분이 [그림 2] 오른쪽의 동물과 매우 흡사하여 마치 선사시대의 문화가 漢代에까지 보존 전승되어 미쳤다고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지상에서 막강한 통치력을 소유한 존재를 중앙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구분한 동시에 각 방위를 주재 또는 대표하는 존재를 위치시키는 인식이 발생했다고 본다. 더욱이 이 같은 사유체계를 천체에 대입하여 북극을 중앙으로 삼아 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구획한 천체의 五方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일찍이 오래전부터 인류는 천문을 관찰하였고, 천체의 변화에 따라 계절의 변화, 일식과 월식의 주기의 일정한 규칙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으며, 연월일과 윤달을 제정하는 동양 고유의 과학적인 역법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殷商 갑골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癸酉, 貞: 日夕又[有]食, 隹[唯]若. (『합』 33694)
 癸酉일에 접치기를: 저녁 무렵 일식이 있으면 순조롭다.

己酉: 自今旬雨, 三月. (『합』 12536)
 己酉일에 묻습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비가 올 것이다. 3월에

이상 殷商 시기 갑골문 용례를 통하여 역법과 천문이 당시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천체의 변화를 관찰하였음을 방증한다. 덧붙여 언급하면 일자와 간지를 표시한 문구는 西周 시기 靑銅器 銘文에 매우 흔히 등장하며, 『文物』 1992년 11기에 발표된 楚 나라 백서 夬편의 「……좌 평 병, 상성 광……불우이□……[……左坪(平)輻(炳), 相星光……不雨二□……]」²⁶⁾

26) 何琳儀가 고석한 문장을 참고하였다. 何琳儀, 『戰國文字通論: 訂補』, 2017: 202.

라는 긴 주기 동안 變光하는 卍星의 미세한 관측은 전국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천문이 관측되었음을 설명한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지상의 중앙 공간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구분하여 자연계와 인간계의 모든 사물과 존재를 조절 통제하려는 인식이 발생되었고, 여러 계통을 다섯 형태로 범주화하는 구조로 확대 변천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천상의 북극이 중앙을 이뤄 이를 구심점 삼아 동·서·남·북 네 방위를 구분한 천체의 오방 체계로 확대 변천되었다고 판단된다. 『淮南子·天文訓』에서 북두성을 중심으로 자루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15일을 한 절기로 정하고 24절기를 구분하여 일 년 360일을 설명하는 구절을 살펴볼 수 있으며,²⁷⁾ 사방의 별들을 2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동방7宿 角·亢·氐·房·心·尾·箕, 남방7宿 井·鬼·柳·星·張·翼·軫, 서방7宿 奎·婁·胃·昂·畢·觜·參, 북방7宿 斗·牛·女·虛·危·室·壁으로 묶어 28宿로 통칭한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있다.²⁸⁾ 이와 관련되어 『尙書·堯典』의 孔穎達 疏를 보면, “『禮記·曲禮』에서 군대의 진영은 하늘의 운행과 유사하다고 설명하며, ‘앞에는 朱雀旗를, 뒤에는 玄武旗를, 왼편에는 靑龍旗를, 오른편에는 白虎旗를 세운다.’고 하였는데, 雀은 곧 鳥이다. 武는 龜甲의 방어를 말하여 ‘玄武’로 變文하였다. 이것은 하늘의 별에 용, 호, 새, 거북의 형상이 있다. 四方에는 모두 7宿가 있고 각각 하나의 형상을 이룬다. 東方에는 용의 형상을 이루고 西方에는 범의 형상을 이루며 모두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북쪽으로 꼬리를 뺐었다. 南方에는 새의 형상을 이루고 北方에는 거북의 형상을 이루며 모두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쪽으로 꼬리를 뺐었다. 南方의 宿는 새를 형상했기 때문에 새를 ‘朱鳥七宿’라고 이룬다(『曲禮』說軍陳象天之行, ‘前朱雀, 後玄武, 左靑龍, 右白虎.’ 雀卽鳥也. 武謂龜甲捍禦, 故變文玄武焉. 是天星有龍·虎·鳥·龜之形也. 四方皆有七宿, 各成一形. 東方成龍形, 西方成虎形, 皆南首而北尾. 南方成鳥形, 北方成龜形, 皆西首而東尾. 以南方之宿象鳥, 故言鳥謂朱鳥七

27) “두 개의 維 사이의 각도는 91도 16분 5이다. 북두성의 자루가 하루에 1도씩 운행하여 15일이 하나의 절기가 되고, 이렇게 하여 24절기의 변화가 생긴다(兩維之間, 九十一度十六分度之五而升, 日行一度, 十五日爲一節, 以生二十四時之變).” 高誘 注, 『淮南子』, 1989: 40-41.

28) 高誘 注, 『淮南子』, 1989: 36.

宿也).”²⁹⁾라고 하여 각 방위의 7宿를 묶어 네 짐승의 형상과 대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앙을 중심으로 네 방위를 구분하는 지상의 지리적 공간에 대한 인식과 북극 중심으로 네 방위를 구분하는 천체의 구획 구분에 대한 인식은 서로 상응하는 개념으로 방위를 다섯 형태로 구분한 동아시아 사람들 고유의 사유체계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史記·天官書』에서 “북두칠성은 이른바 ‘선, 기, 옥형을 살펴서 칠정을 고르게 한다.’는 것이다 ……북두는 帝가 타는 수레가 되어 중앙을 운행하면서 사방을 감시하고 통제한다(北斗七星, 所謂旋, 璣, 玉衡以齊七政.’ ……斗爲帝車, 運于中央, 臨制四鄉).”라고 하여 북두칠성을 가장 존엄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帝와 함께 묶어 오방의 가장 중요 공간으로 북극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五獸의 중앙에 현원과 같은 정치체 집단의 대표 대상을 대체 배속하여 패권을 쥔 지상 영토의 인사 현상을 총괄하고, 자연의 순리와 일상 생활상의 예법, 제도까지 모두 지위 조정하려는 관념을 넘어서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주도하려는 천하 중심 사상이 강조된 것이다.

총괄하면, 지상의 영토와 천체의 구역을 모두 동, 서, 남, 북, 중으로 구분하여 지상과 천체의 구역 구분 구조를 일치시키고, 지상의 통치자 공간과 천체의 북극 공간을 대응시켜 우주의 가장 중심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중앙을 중심으로 동쪽의 별의 형태를 龍으로 설정하며 동방을 대표하는 색깔 푸른색과 짝을 이뤄 청룡으로 일컬었고, 서쪽의 별의 형태를 虎로 설정하며 서방을 대표하는 색깔 흰색과 짝을 이뤄 백호로 일컬었다. 남쪽의 별의 형태 또한 鳥로 설정하며 남방을 대표하는 색깔 붉은색과 짝을 이뤄 朱雀으로 일컬었고, 마지막으로 북쪽의 별의 형태를 龜로 설정하며 북방을 대표하는 색깔 검은색과 짝을 이뤄 玄武로 일컬었다. 따라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는 천상의 네 방향을 주재 또는 보호하는 상징물로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사방의 동물은 비교적 고정된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중앙은 중심 대상에 따라 다른 변화된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오방의 중앙에 배속된 黃龍의

29) [清] 阮元 校刻, 『十三經注疏(全二冊)』, 1980: 121.

근원에 대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 번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앙 토는 오방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방을 다스리는 독자적인 형태로 항상 중시되어 왔다. 농업사회라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만물의 밑바탕을 이루는 중앙 토에 특수 지위를 부여하였고, 땅을 연상하는 황색이 중앙의 대표 색깔로 설정되었다.

龍은 고대시기 신성한 힘과 상서로운 존재로 여겨졌고, 지배층 집단의 권력을 상징하는 길상물로 인식되었다. 또한 군주의 얼굴은 용안(龍顏), 임금이 앉는 자리는 용상(龍床), 임금이 타는 수레나 가마는 용여(龍輿), 옷은 용포(龍袍), 지위는 용위(龍位) 등 최고 권위자를 지칭할 때 함께 사용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일찍부터 현원, 전욱 등의 인물이 龍과 관계되어 서술되었는데, 예컨대 『大戴禮記·五帝德』에서 “황제는 소전의 아들로 현원이라고 한다. 태어나면서 신령하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을 했다. 유년에는 슬기롭고 단정하였고, 장성해서는 마음이 두터우며 재치가 있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총명했다.……황제는 예복인 보불의에 대대와 보상을 입고, 용을 타고, ……(黃帝, 少典之子也, 曰軒轅. 生而神靈, 弱而能言, 幼而慧齊, 長而敦敏, 成而聰明, ……黃帝黼黻衣, 大帶黼裳, 乘龍扈雲, ……)”라고 하였으며, “전욱은 황제의 손자이고, 창의의 아들로 고양이라고 한다. 지략이 있음이 크고 깊으며, 도리에 밝아 사리를 분별할 줄 안다. ……기를 다스려 백성을 가르치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냈다. 용을 타고 사해에 이르렀으며, ……(顓頊, 黃帝之孫, 昌意之子也, 曰高陽. 洪淵以有謀, 疏通而知事; ……治氣以教民, 絜誠以祭祀. 乘龍而至四海, ……)”라고 하여 龍을 특별히 여겨 고대시기 중요 대상과 함께 밀접히 관계되어 서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呂氏春秋·介立』에서 “용이 날아 천하를 휘감았다. 다섯 마리의 뱀이 그를 따라 용을 도왔다. 용은 고향으로 돌아와 그 자리를 얻었다(有龍于飛, 周遍天下. 五蛇從之, 爲之丞輔. 龍反其鄉, 得其處所).”라고 하여 쯤 文公을 용에 빗대어 낭독한 介子推의 시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즉, 龍을 중시하고 섬긴 고대인들의 인식이 투영되어 秦漢 시기 이후 지배층의 의지에 따라 龍을 그들이 속한 중앙에 배속한 동시에 중앙을 대표하는 색깔과 함

께 쓰여 黃龍으로 설정되어 점차 고착화되는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인식된 것이다.

두 번째, 다섯 영역에 짐승을 각각 배속하는 상황에서 동방의 창룡과 중앙의 황룡이라는 단지 색깔만 구분하여 같은 동물을 배치한 부분이 의아하다. 오행 이론에 입각해 살펴보면, 『春秋繁露·五行之義』의 “天에는 오행이 있다. 첫째를 목, 둘째를 화, 셋째를 토, 넷째를 금, 다섯째를 수라고 한다. 목이 오행의 시작이고, 수가 오행의 끝이며, 토가 오행의 중앙이다. 이것은 天이 정한 순서이다. 木은 火를 낳고, 火는 土를 낳고, 土는 金을 낳고, 金은 水를 낳고, 水는 木을 낳으니, 이는 부자 관계와 같다(天有五行: 一曰木, 二曰火, 三曰土, 四曰金, 五曰水. 木, 五行之始也. 水, 五行之終也. 土, 五行之中也. 此其天次之序也.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此其父子也).”라는 내용과 같이 창룡이 배속된 동방 木을 만물의 시작으로 인식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계보 형태의 왕조의 연혁을 서술하고 『史記』 저술의 참고 자료로 이용된 『世本』의 주석본에서 또한 오행 木에 배속된 太昊 伏羲를 시작으로 기전체 형태의 계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³⁰⁾

즉,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동방 木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유 체계가 반영되어 목에 배속된 용을 중앙에 또한 동일하게 배속해 지배층의 상징 동물로 삼았고, 중앙을 대표하는 색깔과 함께 쓰여 黃龍으로 설정되었으며 점차 중앙의 대표 동물로 인식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五獸는 최초 지상 영토의 다섯 구분이 천상에까지 미쳐 북극을 중심으로 네 방위의 주재 또는 대표되는 짐승을 배치한 것이며, 중앙에는 기득권 세력을 상징하는 동물을 배치함으로써 천하의 만사만물을 주관한다는 그들 사유체계의 결과물로 판단할 수 있다.

30) [漢] 宋衷 注, 『世本八種』, 1957: 3.

4. 맺음말

이상, 문헌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중이라는 五方に 배속된 五獸의 형태를 검토하고 다섯 동물의 전체적인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五獸의 구성에 대하여 규명해 보고자 했다.

일찍이 영토적 공간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구분하고, 이를 조절 통제하는 역할의 중앙을 설정하여 동·서·남·북·중이라는 조직화된 五方이라는 방위 구조 체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들 다섯 방위를 향한 풍년 기원 제사 의식과 함께 절대지를 상징하여 삶의 안식과 안락을 기원하는 형태가 발생한 동시에 중앙을 중심으로 사방의 雨順風調와 자연물을 인격화하여 예식을 보편화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점차 다른 계통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었고, 천지 만물을 다섯 형태로 정리 구분 범주화하여 운용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본고에서 다룬 五方に 배속된 五獸 또한 이에 속하는 산물이며, 대부분의 문헌에서 동-청룡, 남-주작, 중앙-황룡, 서-백호, 북-현무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지상의 체계화되어 정형화를 이룬 五方이라는 공간 구조와 천체의 공간 구조를 서로 일치시키며 발생한 동양 고유의 방위 구획 구조에 의한 결과물이다.

지배층 공간을 중앙으로 중심 삼아 통치권 구역의 영토를 네 형태로 분류하였듯이 천체의 북극 또는 북극에 위치한 특정별을 중앙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동·남·서·북의 별을 각각 7宿로 묶어 네 방위의 神獸를 상징한 것이다. 이 같은 형태는 지상에 또한 동일 적용되어 영토 중심의 지배층 집단을 중심으로 네 방위를 각각 구분 관리했으며, 이에 사방은 보편적으로 고정된 동물의 형태를 보이는 반면 중앙은 중심 대상의 변화에 따라 교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秦漢 시기 이후 신성한 힘과 상서로운 존재로 여긴 龍을 지배층 집단의 표상으로 삼아 중앙에 배속하였거나, 혹은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동방 木의 영향으로 인하여 木의 동물을 지배층 집단의 상징 동물로 삼아 중앙에 또한 동일하게 배속하였고, 결과적으로 중앙을 대표하는 색깔과 함께 쓰여 黃龍으로 설정되며 점차 중앙의 대표 동물로 인식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일찍부터 오방이라는 영토적 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중앙이라는 공간에서 사방의 만사 만물을 지배 통제하려는 근본적인 인식이 주를 이뤘고,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五獸 또한 지배층 인사들이 모든 공간에 발생하는 현상을 주도한다는 복합적인 의식 체계에서 발생되었다. 다시 말하면, 五獸의 형태는 천상의 네 방위를 대표하는 神獸와 지상의 지배층이 합치되어 만들어진 동아 시아의 독특한 사유의 결과물이다.

〈參考文獻〉

- 박성우, 「殷商과 周代 출토문헌에 보이는 五方の 확대 형태」, 『中語中文學(第87輯)』, 서울: 韓國中語中文學會, 2022.
- 박성우, 문치웅, 「五行 이론으로 본 五帝의 기원과 형성」, 『동양고전연구』 第87輯, 서울: 동양고전학회, 2022.
- 배명환, 『陰陽五行에 근거한 六合 空間觀에 관한 研究』,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 [漢] 班固 撰, 『漢書』(第六冊), 北京: 中華書局, 1964.
- 陳奇猷 校釋, 『呂氏春秋校釋』, 上海: 學林出版社, 1984.
- 傅嘉儀 編著, 『中國瓦當藝術』,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2.
- 高誘 注, 『淮南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 郭沫若, 『甲骨文合集』, 北京: 中華書局, 1983.
- 郭沫若, 『周代金文圖錄及釋文(精裝三巨冊)』, 台北: 大通書局, 1971.
- 黃懷信 主撰, 孔德立·周海生 參撰, 『大戴禮記彙校集注』, 西安: 三秦出版社, 2004.
- 黃懷信, 張懋鎔, 田旭東, 『逸周書彙校集注-修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 黃暉, 『論衡校釋』(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0.
- 何琳儀, 『戰國文字通論: 訂補』,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7.
- 何寧 撰, 『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8.
- 何清谷 校注, 『三輔黃圖校注』, 西安: 三秦出版社, 2006.
- 何新, 『龍: 神話與真相』,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0.
- 酈道元 著, 『水經注』, 成都: 巴蜀書社, 1985.
- 黎翔鳳撰: 梁運華整理,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4.

- [晉] 陸機 著；楊明 校箋，《陸機集校箋·上》，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6。
- 濮陽市文物管理委員會，濮陽市博物館·文物隊，「濮陽西水坡遺址試掘簡報」，《中原文物》第一期，鄭州：河南博物院，1988。
- [清] 阮元 校刻，《十三經注疏(全二冊)》，北京：中華書局，1980。
- 上海師範大學古籍整理組校點，《國語(共二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出版，1978。
-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十三經注疏》，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
- [漢] 司馬遷 撰，《史記(全十冊)》，北京：中華書局，1963。
- 蘇輿 撰，鍾哲 點校，《春秋繁露義證》，北京：中華書局，1992。
- [清] 孫希旦，《禮記集解(全三冊)》，北京：中華書局，1989。
- 孫亞冰，林歡，《商代地理與方國》，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10。
- [清] 孫詒讓，《周禮正義(全十四冊)》，北京：中華書局，1987。
- 譚其驥 主編，《中國歷史地圖集 第一冊：原始社會、夏、商、西周、春秋、戰國時期》，北京：中國地圖出版社，1996。
- 王利器，《文子疏義》，北京：中華書局，2000。
- 王雲五 主編，「五行大義·卷五」，《叢書集成》，台灣：商務印書館，1937。
- 王雲五 主編，「吳子及其他一種」，《叢書集成》，台灣：商務印書館，1937。
- 王雲五 主編，《禮記今註今譯》，台灣：商務印書館，1978。
- 楊伯峻，《春秋左傳注(修訂本)》，北京：中華書局，1981。
- 鍾柏生，《殷商卜辭地理論叢》，臺北：藝文印書館，1989。
- 朱鳳瀚，「再讀殷墟卜辭中的‘衆」」，《古文字與古代史》(第二輯)，台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2009。
- 河南博物院，http://www.chnmus.net/sitesources/hnsbwby/page_pc/index.html

〈Abstract〉

Formation Process of Five Symbolic Animals in the Ohaeng System

Bak, Seong-Woo / Moon, Chi-Ung

From the excavated Oracle bone script data, we can see that the geographical directions and their areas are divided into east, west, south, north, and center. The five elements theory (Ohaeng) is a fivefold conceptual scheme composed of the five materials

as Water (水, north), Fire (火, south), Wood (木, east), Metal (金, west), and Earth (土, center). Based on this theory, ceremonies to pray for good harvest for these five regions and managers to govern the area were selected so that the people could live comfortably. Ohaeng conceptual scheme was applied many fields of ancient East Asia to categorize the area of key elements, which were progressively expanded from geographical, political and life to astronomical phenomena.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process of forming symbolic animals which an important subject along with five areas and their rulers, and five colors. These animals were clearly described on the excavated Oracle bone script data as blue dragon in the east, red phoenix in the south, white tiger in the west, and black turtle in the north.

However, the symbolic animal for the center does not appear in the Oracle bone script data and bronze script of the Shang and Zhou periods. It was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and the Qin and Han dynasties that the selection of symbolic animals for this center began to be discussed. At the same time, the order cycle of mutual generation (相生) concept was defined as Wood (木) – Fire (火) – Earth (土) – Metal (金) – Water (水). From this time on, the center of government began to become the center (土) of the Five Elements and theorists also began to select the symbolic animal for the ‘center’. The candidate animals were kylin (麒麟), Gujin (句陈), Deungsa (滕蛇), Heonwon (轩辕), or yellow dragon (黄龙). Among them, the dragon is the most favored animal for rulers in the Qin and Han periods. Because the dragon was an auspicious animal and also a symbol of the East, which had long served as the center of four directions. Eventually, the symbol animal of the center was created by synthesizing the dragon of the eastern symbol and the yellow color in the center.

Key words: Ohaeng, symbolic animals, oracle bone script, dragon, Qin and Han periods

이 논문은 2022년 10월 10일에 투고되어 2022년 10월 3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2년 11월 0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